

지난해 프랑스가 책을 팔아서 거둬들인 돈은 총 37억 유로였다. 출판산업이 영화와 음반 산업을 제치고 프랑스 제1의 문화 산업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프랑스 출판산업은 2000년에 5.5%라는 놀라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2001년에도 4.5%의 매출 신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프랑스 출판계가 비벤디 유니버설 퍼블리싱(이하 VUP)과 마트라 아셰트(이하 아셰트)라는 매머드급 출판 그룹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대변해오던 프랑스 출판계의 위상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이브 몰리에가 책임 편집해 지난 2월에 출간한 《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디스 푸이트)는 이처럼 기로에 선 프랑스 출판계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출판의 장인정신 대신 상흔만 활개쳐**

현재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책의 3분의 2가 프랑스 양대 출판 그룹인 VUP와 아셰트 산하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책이다. 그들에게 ‘책’은 그들이 취급하는 많은 매체 상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최고 이윤 상품으로서 책을 지칭하는 말이 돼버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은 전통적으로 출판 및 도서 유통을 주도해왔던 출판인, 작가, 서점인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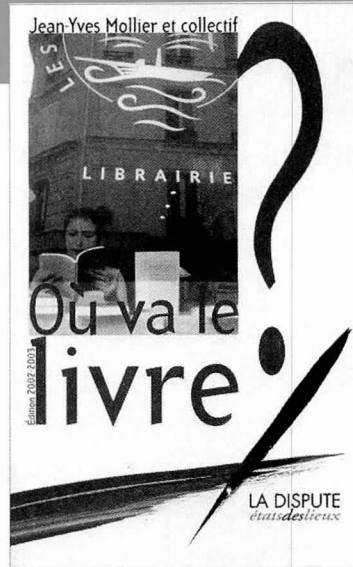
텍스트를 감식하는 출판인 대신 계산기를 들이미는 ‘사장’을 내세우고, 개성 있는 작가보다 원하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글쓰기 기능인’을 선호한다. 그리고 책을 알고 소개해줄 수 있는 서점인보다 마케팅과 유통 능력을 갖춘 ‘상인’과 거래하려 한다. 미디어 비평지 《텔레라마》의 퓌 데브노와 기자는 “출판 미디어 그룹은 작가 없는 ‘책’을 출판인 없이 ‘출판’하고 서점인 없는 ‘서점’을 통해 팔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그나마 프랑스 출판계가 미국과 달리 미디어 그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독립 출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파리 서적 전시회에서 독립 출판사들은 메이저 출판 그룹과의 변별성을 확

# 출판 대기업에 밀려 독립 출판사들 사라진다

《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비친 프랑스 출판계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프랑스 출판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지.

보하고 꾸준히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사전류, 학습지처럼 수익이 보장된 출판물에 주력하는 출판 그룹이 사세 확장에 정신이 없는 반면, 중소 규모의 독립 출판사들은 무명의 작가들이 보내오는 수많은 원고를 읽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때로 그들의 이런 노력이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가령 200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오싱젠은 다른 데서 모두 거절을 당하다가 자신만큼이나 무명인 로브 출판사의 배려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밀리언셀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상이 흔한 일도 아니고 거의 모든 독립 출판사는 자본의 태풍 앞에 속수무책이다.

**독립서점의 시장 점유율 크게 떨어져**

그리고 정작 다양한 책과 다양한 독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던 여러 독립 서점들이 인터넷 서점과 체인형 거대 서점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출판 주간지 《리브르 엡도》의 파브리스 피오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책을 독자와 만날 수 있게 하느냐다.” 그나마 최대 5%의 할인율까지만 허용하는 프랑스 정부의 도서정가 정책 덕분에

아직 숭통이 트일 여지는 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독립 서점들이 전체 책 판매량의 50%를 점유하던 것이 지금은 18% 밀려서 떨어졌다.

영어권 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파리의 어느 유명한 서점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본 서점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 독립

서점입니다. 여기에 선정해서 진열한 책의 목록은 우리 서점의 지적 재산입니다. 따라서 여기 진열된 책의 제목이나 ISBN은 따로 메모하실 수 없습니다...” 독립 서점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랑스 출판계의 위기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풀이할 수는 없다. <데쿠베르트 총서> 기획자인 프랑소와 제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발전에만 둘 수 없다. 사회적 분위기도 따져 봐야 한다. 책을 신성시하는 태도는 사라졌다. 자신의 집에서 책을 두는 것이 자랑이던 시절은 지났다.” 프랑스 출판계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 ■